

중국 온라인상의 한국 문학서 보급 현황 고찰*

박애양**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한국 문학서 중국 보급 현황
3. 앞으로의 과제
4.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문화교류란 각 문화가 갖는 고유성과 정체성을 알아가며 상대를 이해하려는 친화적 노력이며 문화교류를 할 때 인적 교류와 동시에 수반되는 중요한 행위가 자료의 교환과 번역이다. 인적, 물적 자료의 교류와 번역 행위는 상호 친화적 노력의 자발적, 적극적 수용행위이며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핵심 도구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중 교류의 역사는 한중 간 인물과 자료 교류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자료로서의 효용성을 갖는 도서 번역과 출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향력 있는 번역물은 때로 문화교류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을 갖기도 하는데 번역을 통해 한중 교류의 다양성과 빈번함을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 양국에서 지속적으로 출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하

* 이 논문은 2015-2016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AKS-2015-INC-2230005)

** 山東大學外國語學院韓語系

졌다.

본고가 한국 문학서의 중국에서의 유통에 관심을 둔 것은 문화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매개체가 문학이고, 문학을 통해 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거부감 없이 스며들고 흘러들어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국 작품의 번역이라는 것은 문화의 '이식'이라는 개념을 반영하며 상대적으로 우수한 문화에 대해 더욱 많이 시도되는 경향이 있다. 그간 중국에서는 외국 출판물에 대한 활발한 번역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번역작업을 실시해오고 있다.¹⁾ 그러나 실제로 본고의 조사 결과 한국인이 번역한 작품은 물론이고 중국인 번역가가 소개하는 한국 문학서나 한국 관련 작품은 영미 작품이나 일본서적 소개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²⁾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이나 민간 교류 등을 통해 한국 문학 작품의 중국어 번역 사업이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한중 양국 간에 이루어진 각종 교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호기심은 있지만 그 관심이 한류나 한국 관광, 한국 상품 등에 주로 머물고 있어 향후 중

- 1) 중국에서의 번역연구와 번역 동향을 연구한 자료로 김혜림(김혜림, <중국의 번역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13집, 2012. 9)의 논문이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과거 중국에서는 대학원 세부 전공으로 번역학을 인정하였지만 세계 각국과의 교류 증대에 따른 통번역 수요의 확대에 따라 2006년 이후 학부에도 번역학과를 설치하였고 2003년 4월 상하이외국어대학 통번역대학원 설립을 계기로 더욱 번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통번역학의 학문적 정체성 수립에 관한 연구, 코퍼스나 TAPs 등 실증적인 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비롯한 문헌이나 이론 소개, 단순 텍스트 분석 등에 관한 연구, 서구 번역이론에 대한 연구, 중국의 통번역 역사, 중국 전통 번역사상이나 번역가의 고찰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2) 그간 한국 측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고전번역원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번역가도 키우고 경쟁력 있는 작품을 중국어로 번역해 왔다. 중국에서의 한국어학과 설치와 중국인 한국 유학생들의 증가로 인해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어 원문 해독 능력을 갖춘 이들이 많이 배출되어 왔다. 1997년 드라마 '한류'가 펼쳐지면서 2002년부터 김하인, 귀여니 등을 비롯하여 최인호, 신경숙 등의 작품이 중국어로 번역되었고 특히 귀여니의 작품은 2004년 중국 10대 베스트셀러의 상위에 오른 바가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용국가(중국)의 필요에 의해 번역된 작품의 과급력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한류로 표현되는 대중문화 외의 정치, 경제, 교육 분야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중국자료의 번역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손지봉, <중국의 번역연구 일고>, 《한중언어문화포럼 발표 논문집》, 2014. 12) 참조

국 독자들에게 한국 문학서를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고찰은 한국 문학서가 중국 온라인 서점에서 유통되는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 문학 작품의 전파 및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면 좋을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다양한 방안 중에서도 먼저 중국에서 우리 문학 작품이 출간된 현황의 정리를 통해 외국 출판물과 한국 관련 서적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식을 가늠해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향후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외국에서 우리 문학서를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의 수립도 도모해 볼 수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 문학서 소개 현황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하여 차례로 생각해보기로 한다.

2. 한국 문학서 중국 보급 현황

1) 중국 저작권 수입 현황

그간 중국에서의 외국 저작물 출간은 상당한 노력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일정한 수준과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관련된 저작물의 연구와 보급은 서구나 영어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로 중국국가저작권국 사이트에서 발표한 도서 저작권 수출입 국가별 내용을 도표로 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3)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9977/313436.html> 자료출처: 중국국가저작권국(中國國家版權局) 통계 발표일: 2018년5월11일, 검색일:2018월5.23일 도서 부분만 정리(본고 투고 이후 2016년 발표되어 2018년 5월 11일자 내용을 추가로 정리 보충하였다.)

〈표 1〉 중국의 저작권 수출입 국가별 현황—도서부분 (단위:종)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미국	4944	1021	5489	753	4840	734	4840	887	5201	932
영국	2581	606	2521	574	2655	410	2677	546	2873	290
독일	874	352	707	328	807	304	783	380	888	262
프랑스	835	130	772	184	754	313	959	138	1069	110
러시아	48	104	84	124	97	177	86	135	101	356
캐나다	122	104	111	46	160	67	151	81	142	87
싱가폴	265	173	310	171	211	248	240	262	260	184
일본	2006	401	1852	292	1736	346	1724	285	1911	353
한국	1209	282	1472	656	1160	623	826	619	1024	576
홍콩	413	440	354	402	181	277	159	311	208	486
마카오	5	1	7	24	8	13	1	31	1	56
대만	1424	1781	1100	1714	1171	2284	1052	1643	949	1848
기타	1389	2173	1846	2037	1762	2292	1960	?) ⁴⁾	1960	2788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수출입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 도서의 수출입 수치는 굴곡이 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작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큰 차이가 있으며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어 도서 저작권 수입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특히 2015년에는 2012년의 60% 정도에 그쳤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중국 국내외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이겠지만, 당시 2013년과 2014년 한중 관계는 두 정상외의 국빈방문으로 양국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또 2016년에는 다시 어느 정도의 수입 수치를 회복하고 있어 한국 도서 저작권 중국 수입 추이 변화를 전적으로 외부적 요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본고는 이 문제의 원인을 콘텐츠 자체에서 먼저 찾아야 하며 그 이유를 중국내 한국 도서 콘텐츠 호감도 저하에서 살필 수 있다. 이미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콘텐츠 유입으로 중국 독자의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획일적이고 전형적인 내용을 담은

4) 위 사이트 자료에 2015년 기타 부분 수출 내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

한국 도서에 식상함과 피로감을 느끼는 독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KOTRA와 협력해 발간한 보고서 <2015년 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중국에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도서 등은 타 콘텐츠에 비해 인지도와 호감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⁵⁾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 개발로 한국 문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 중국 온라인 서점의 한국 문학서 소개 현황

중국에서의 한국 문학서 유통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 유명 온라인 서점을 직접 조사하여 본 결과 현재 중국 온라인에서는 약 천여 종의 한국 도서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 인터넷 문고 가운데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当当网”, “豆瓣讀書”, “亞馬遜” 등 서점 사이트 3곳에 소개된 한국 도서 중어판도 643종에 달한다.(조사기간: 2017년 12월 20일~2018년 1월 9일) 이들 자료의 도서명, 작가, 번역자, 출판사, 출판시기, 장르, 페이지, 판매 금액, ISBN 등을 찾아 기록하고 다음 (그림 2)와 같이 분류해 보았다.⁶⁾

5) 출처: http://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1_view.asp?seq=262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코트라, <2015년 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2016. p.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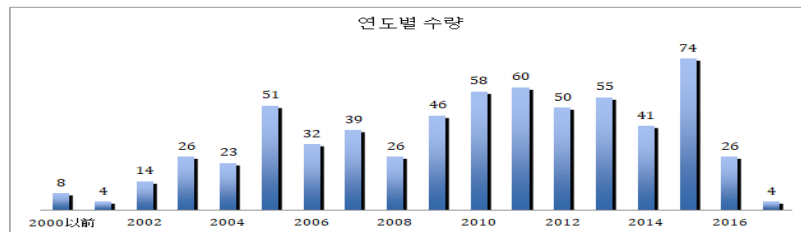
6) 본 조사는 3대 온라인 서점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전체 온라인상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자료가 유통될 것으로 보이지만 3대 온라인 서점을 통해 현재 중국의 도서 유통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기에 샘플링 차원에서 우선 조사해 본 것임을 밝힌다.

(1) 연도별 출판 현황

▲	A	B	C	D	E	F	G	H	I	J
1	도서명	원서명	작가 (역자)	출판사	출판시간	体裁	页数	定价	ISBN	
2	迷途彼岸	미로의 저쪽	김성중 (陈雪鸿)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9년	小说	339	27	9787538915761	
3	孙子兵法演义	소설손자병법	정비석 (陈和章)	北京-中国青年出版社	1988년	小说	587	6.9	9787500604297	
4	我当了七天汉奸	7일 간의 서출사	김상철 (权赫秀)	新华出版社	1994년	小说	214	8	9787501125678	
5	金大中自传-我	김대중 자서전	김대중 (黄玉今)	外文出版社	1998년	传记	262	20	9787119022369	
6	美妙的幽会	아름다운 밀회	김성중 (高岱)	上海译文出版社	1998년	小说	477	13	9787532722105	
7	蓝色生死恋	가을 동화	오수연 (童瑶)	中央编译出版社	2001년	小说	462	32	9787801095138	
8	龙族	드래곤 라자	이영도 (王中宁 / 王中宁)	华文出版社	2001년	小说	262	20	9787507511925	
9	巫女图	무녀도	김동리 (韩梅)	上海译文出版社	2002년	小说	234	14	9787532728299	
10	灯塔守望者	등대지기	조창임 (王东福)	中国工人出版社	2002년	小说	276	19	9787500828723	
11	菊花香	국화꽃 향기	김하인 (荀寿溍)	南海出版公司	2002년	小说	294	20	9787544221672	
12	我的野蛮女友	엽기적인 그녀	김호식 (何晨)	当代世界出版社	2002년	小说	396	27	9787801155429	
13	冬季恋歌	겨울연가	김은희 (因恩锐)	当代世界出版社	2002년	小说	375	27	9787801155542	
14	情定大饭店	호텔리어	강은경 (尹晨伊)	中央编译出版社	2002년	小说	382	25	9787801095336	
15	七朵玫瑰	일곱 개의 장미	김성중 (嘉明)	上海译文出版社	2002년	小说	282	15	9787532729234	
16	玻璃鞋	유리구두	장은경 (曾祥杰)	当代世界出版社	2002년	小说	398	27	9787801155641	
17	火花	불꽃	김수현 (黄胜)	中国盲文出版社	2002년	小说	303	22	9787500217541	
18	第11棵苹果树	열한 번째 사과	이용범 (李贺奎)	新世界出版社	2002년	小说	339	22	9787800058899	
19	夏娃的诱惑	이브의 유혹	박지현 (尹晨伊)	中央编译出版社	2002년	小说	354	23	9787801095329	
20	我是韩国人	나는 한국인이다	신세용 (华艺出版社)	华艺出版社	2003년	传记	247	16	9787801424303	
21	我是天才优等生	공부기술	조승연 (韩永杰)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년	传记	179	17	9787500439653	
22	一沙一世界	소리 하나	이철수 (于萌)	哈尔滨出版社	2003년	散文	184	13	9787806399019	
23	退魔录	퇴마록	이우혁 (金京善)	东方出版社	2003년	小说	235	24	9787506016568	
24	恋风恋歌	연풍연가	김형옥 (大美玉)	华夏出版社	2003년	小说	194	17	9787508030937	
25	你爱香草吗	허브를 사랑하	김하인 (荀寿溍)	南海出版公司	2003년	小说	271	20	9787544225304	
26	商道	상도	최인호 (王宜畔)	世界知识出版社	2003년	小说	662	38	9787501220779	

(그림 1) 중국 온라인 서점 한국 문학서 정리 (2018년 1월 현재)

우선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출판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한국 도서 중역서 출판 현황(주요 온라인 서점 노출 도서를 중심으로)

2018년 1월 9일 기준으로 1970년부터 2017년까지 온라인 서점을 통해 소개된 한국 도서의 중국어 번역 출판 시기를 볼 때 표1에 나타난 저작권 수입의 도표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저작권 수입이 곧장 도서 출판으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한국에서도 외국 서적이 소개되고 번역되어 출판이 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출판사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도서의 내용과 출판사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출판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 그림 2는 한국 저작물 번역서 출판 시장의 시기별 현황을 어느 정도 보여준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2) 장르별 현황⁷⁾

자료 조사에 따르면 전체 도서 643종 가운데 문학 작품류가 351종(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문화 예술이 116종으로 18%를 차지했고 시중에 판매 중인 교재는 가장 적게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장르별 분포 현황

장르	문학		기초과학		교재		예술분야		기타		합계			
종류	351		71		16		116		89		643			
비율	55%		11%		2%		18%		14%		55%			
문학	종류	비율	기초과학	종류	비율	교재	종류	비율	문화 예술	종류	비율	기타	종류	비율
소설	268	76.4	문화	16	22.5	교재	14	87.5	만화	47	40.5	생활	20	22.5

7) 분류 근거는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분류한 것을 따른 것으로 한국 도서 분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기	20	5.7	심리	12	16.9	사전	2	12.5	회화	47	40.5	패션	19	21.3
아동 문학	18	5.1	사회 과학	12	16.9				애니 메이션	8	6.9	가구	10	11.2
수필	13	3.7	역사	11	15.5				그래 픽디 자인	7	6.0	여가 여행	9	10.1
인문 서	13	3.7	경제	6	8.5				사진 영화	7	6.0	건강	8	9.0
산문	11	3.1	교육	6	8.5							여성	7	7.9
시집	6	1.7	건축	3	4.2							음식	7	7.9
고전 문학	1	0.3	기초 과학	2	2.8							학습	5	5.6
문학 개론	1	0.3	전쟁	2	2.8							창업	3	3.4
			관리	1	1.4							컴퓨 터	1	1.1
합계	351	100.0 %	합계	71	100.0 %	합계	16	100.0 %	합계	116	100.0 %	합계	89	100.0 %

위 표에 의하면 소설이 76.4%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문학서 전과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소설류 번역이 가장 활발한 이유는 드라마와 웹툰의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전기 5.7%, 아동문학 5.1%, 인문서 3.7%, 수필 3.7%, 산문 3.1%, 시집 1.7%, 고전문학 0.3%, 개론서 0.3% 등으로 나타났다. 문학 작품 이외에는 사회과학분야 71종(8.4%), 학습 교재류 16종(2.4%), 만화 등 그림 회화 분야 116종(17.8%), 기타 89종(14%) 등이 중국독자에게 소개 및 판매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는데 본 통계를 통해 현재 중국에서의 한국 문학서 유통 현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다.

3) 한국 문학서 번역가 현황

번역가에 대한 초기 조사 결과, 한국 문학 작품을 중국어로 옮기는 일에 종사하는 번역가는 대부분 학계와 번역 현장에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성이 높은 전문 번역가가 많았다. 예를 들어 황석영의 《객지》를 번역한 苑英爽(원영혁, 대련 외국어대학), 박경리의 《토지》 등을 번역한 金英수(김영금, 편집자), 박완서의 《아주 오래된 농담》 등을 번역한 金泰成(김태성, 작가), 김동리의 《무녀도》 등을 번역한 韓梅(한매, 중국산둥대학교), 이광수의 《흙》을 번역한 李承梅(이승매, 중국해양대학교)와 李龍海(이용해, 중국해양대학교), 신경숙의 《외판방》을 번역한 薛舟(설주, 번역가)와 徐麗紅(서려홍, 번역가), 성석제의 《도망자 이치도》를 번역한 鄭炳男(정병남, 번역가)과 金冉(김염, 번역가), 조신영의 《쿠션》과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을 번역한 千日(천일, 필명: 천태양, 번역가), 한강의 《내 여자의 열매》를 번역한 崔有學(최유학, 중국중앙민족대학교), 《가시고기》 등을 번역한 金蓮蘭(김연란, 동방언어학원), 《국화꽃 향기》 등을 번역한 荀壽瀟(순수소, 번역가), 귀여니의 인터넷 소설을 번역한 黃鸞(황형, 번역가) 등 모두 현재 한국문학 중어번역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다.⁸⁾ 번역가의 이러한 개인적 특징은 번역자 자신의 경험이 교육현장에 전달될 수 있으며 번역 인재 양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번역된 작품의 구성원을 보면 작품 당 번역가 구성은 1인 1 작품의 예가 대부분이었다. 한국과 중국 번역가가 한 팀으로 구성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중국 번역가 2인이 한 조가 되어 작품을 번역한 예도 여럿 보였는데 그 가운데 유명 번역가 薛舟와 徐麗紅은 각각 번역한 책도 많지만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번역한 작품이 전체에서 27권 이상이나 되었다.⁹⁾ 이러한 예는 한국 문학 작품을 전문적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왕성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줌과 동시

8) 한국문학 번역가 소개는 부록1에 수록하였음. 본 자료는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baidu.com)에서 검색이 가능한 번역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음.(검색일 2018.3.10)

에 향후 차세대 신진 번역가의 양성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또 하나의 추세는 출판사가 대표 역자가 되는 경우인데 이런 번역서는 개별 역자의 이력이 드러나지 않아 번역문체의 특징이나 성향을 파악하기 어렵다.¹⁰⁾

3. 앞으로의 과제

한중 문학 교류의 건강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한국 문학서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문학 작품 보급에 노력

위의 표3 온라인 도서 장르별 분포 현황 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 도서의 중국어 번역서는 장르 면에서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자는 번역을 통한 문화교류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전문적인 내용의 대중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중국 독자에게 한국 문학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국제적인 상을 받은 작품과 드라마 소설, 웹툰 소설은 현재로서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분야로 여겨지며 이 분야 작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발굴이 계속되어야 한다.

- 9) 薛舟와 徐麗紅가 공역한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경숙(중소리, 엄마를 부탁해, 외딴방,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은희경(타인에게 말 걸기), 김훈(공무도하), 유광수(진시황 프로젝트), 천명관(고래), 유민주(대장금), 구효서(랩소디 인 베를린), 이정명(바람의 화원, 뿌리 깊은 나무), 조경란(혀), 권지예(폭소), 김영하(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등과 귀여니 작품 다수.
- 10) 지금까지 중국에서의 한국문화 관련 번역은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왔으나 향후는 신진 번역가들을 통해 보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고르게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친근하고 다양한 소재의 한국 문학서를 발굴하고 중국어 번역물로 제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류 콘텐츠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는 작품들에 대한 소개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귀농생활, 농촌 체험과 어촌 체험기를 담은 신개념 농촌 이야기, 한국의 정치 사회적 특징으로 나타난 이주민과 그들의 정착생활 등 친숙하지만 참신하고 낯설지만 알고 싶은 소재의 글들을 소개하려는 노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문 학술 서적의 번역과 함께 대중이 읽고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룬 한국 문학작품을 번역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노력이 원전 제공자의 노력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문학 번역서의 소비자인 중국 학계에서도 상대방 문화를 담고 있는 문학작품을 거부감 없이 현지 언어로 옮겨오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호 작품을 번역하고 소개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은 향후 한중 문학교류를 공고하게 하는 버팀목과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양국 문학의 번역 인프라 확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차세대 한국 문학 번역가 양성

위의 온라인 서점 현황 조사에서 파악된 것처럼 현재 중국에서 한국의 학술서나 문학서 번역의 활성화는 좀 더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중국 독자들에게 소개될 문학도서가 아직도 많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문학도서의 확장고 보급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한국 문학서는 물론 인문 사회 전반에 걸친 한국 도서의 번역 출판 부진을 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이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그 방안의 하나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번역 능력을 갖춘 한국어 전공자를 양성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번역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한국문학 번역 연구 환경의 조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¹¹⁾

현재 한국 번역원에 등록된 번역가는 영어권 738명, 일본어권 374명, 중국어권 498명으로 한중 번역의 경우 비교적 상위에 있으며¹²⁾ 온라인 한국 도서 중국어 번역 현황 조사에서 초기 분석한 것처럼 현재 한국 도서 번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번역가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번역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높은 전문 번역가가 많다. 앞으로 이들의 뒤를 이룰 젊은 번역가의 양성이 한중 문화교류와 번역교류에 핵심적 요소가 될 것이다. 번역 능력은 시간과 노력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번역 능력은 출발어와 도착어에 대한 언어 능력과 문화 이해력, 그리고 번역자의 근력까지 요구되는 종합적 능력으로 오랜 기간 학습과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렵다. 향후 문학도서 번역을 통한 한중 교류의 저변 확대와 균형적 발전을 위해 청년 번역가들의 역할을 기대하려면 번역 인재 양성에 관심을 두고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대학 한국어과에서 한국문학 동아리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다. 현재 산동대 한국어과에서는 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독서동아리를 지원해 오고 있다. 모임은 일주일에 1회 약 2시간 정도이며 15명 내외의 학생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다. 2017년 두 학기에 걸쳐 함께 읽은 작품은 《국어교과서작품읽기-중1소설》이었으며 작품에 대한 배경 설명과 의미, 한국적 문화 요소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가 학생들의 감상을 듣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토론한 작품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면 한국인 지도 교수

11) 박애양(2016)은 중국 현지에서 한국을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한국문화 번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한국문학 번역 연구 환경 재조정을 위해 '교육 내적 환경'(교육 참여자,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재, 수업 설계 등)과 '교육 외적 환경'(학부와 대학원 연계 시스템, 교육내용 보완, 번역대회, 번역 네트워크구축 등), 몇 가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애양,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번역인재 양성 방안 연구>, 《언어와 문화》 12권 4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6), pp.103-130.

12) http://library.ltkorea.or.kr/translators?f=y&field_language%5B%5D=Chinese 한국문학번역원(자료 참고일:2017.1.12)

가 침착 지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참고로 2018년 봄 학기 감상 작품은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다.¹³⁾

이러한 노력은 한국어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번역이 언어뿐만 아니라 사상과 문화,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옮기는 작업이니만큼 학제 간 공동의 관심 주제로 협업 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의 번역과 보급은 이러한 기본적인 틀에서 활성화 방안을 확대시켜 가야 할 것이다.

3) 한국 문학서 보급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필요

중국에서 한국 문학을 접하는 방법은 서적에 의한 것이 일차적이겠으나 실제로는 정식으로 번역 출판된 도서 이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비공식적 접근도 가능하며 서적 못지않게 활발한 실정이다.¹⁴⁾ 한 예로 중국의 한 문학작품 전문 사이트¹⁵⁾에 소개된 한국 소설을 보면 한류 문학 붐을 일으켰던 초기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귀여니(可爱淘), 지

13) 본고가 중국내 14개 대학(吉林大学, 吉林华侨外国语学院, 对外经济贸易大学, 北京大学, 北京第二外国语学院, 四川外国语大学, 山东大学, 山东师范大学, 西安外国语大学, 广东外语外贸大学南国商学院, 延边大学, 中央民族大学, 青岛科技大学, 湖南理工大学) 한국어과에 한국문학 독서동아리의 운영 여부를 전화와 SNS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중 11개 대학에서 독서동아리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中央民族大学에는 “웅달샘”이라는 문학동아리가 있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북경제2외국어대학에서는 한국문학작품의 중국 번역서 독서발표회(최근 독서 작품: 朴槿惠日記박근혜 일기)가 진행된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산둥대 한국어과(제남 캠퍼스)에서 한국문학 독서동아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조사일: 2018.5.27-29) 그러나 이번 조사는 중국 소재 대학 한국어과를 다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표본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4) 출처: <http://www.poemlife.com/index.php?mod=showtran&str=1370> 중국 인터넷 사이트 ‘诗生活’. 이 사이트에는 [번역란(翻译专栏)]을 따로 두어 유명 번역가의 해외문학 중어 번역문을 읽을 수 있도록 링크를 해 놓았다.(검색일: 2018.3.10.)

15) 출처: <https://www.kanunu8.com/files/15.html> 중국 인터넷 사이트 努努书坊 [韩流文学, 韩国青春文学] 코너 (참고일:2018.3.10.)

수현(池秀賢), 김현정(金賢正), 김하인(金河仁), 최주란(崔姝蘭), 최승지(崔勝智), 다인2(多忍2), 김경휘(金慶輝), 김지혜(金智慧), 강하나(姜恨羅), 김예풍(金藝風), 마실가는광노니(流浪的青春), 김명숙(金明淑), 강가영(姜佳英), 소희(蘇熙), 이정남(酷兒), 최우려(酷貝兒), 은세영(銀世英), 이임은(李林銀), 김은경(夏雨愛特), 오현정(吳賢正), 정은경(鄭恩京), 이수아(李帥雅), 은반지(銀戒指), 서연(瑞戀), 주효선(周孝善), 서형주(徐亨周), 임은희(林銀喜), 정주희(鄭周喜), 은봉(銀鋒), 박경은(朴京恩), 김은경(金恩更), 전민희(全民熙), 강미주(姜美珠), 위현우(韋炫羽), 김성종(金聖鍾), 紫色女孩, 葡萄¹⁶⁾ 등 38인에 달하는 소설 작가들이 나름대로의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직접 이들 한국 작가의 소설 202권이 중국어 번역본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링크가 되어 있었다.

[首頁](#) [國內作家](#) [港台海外](#) [外國文學](#) [青春校園](#) [都市生活](#) [歷史軍事](#) [古代文學](#) [短篇](#) [諾貝爾](#)
[網絡原創](#) [穿越言情](#) [玄幻奇幻](#) [科幻](#) [恐怖靈異](#) [仙俠修真](#) [武俠](#) [推理](#) [官場小說](#) [傳記紀實](#) [鬼故事](#)
[遊戲小說](#) [職場](#) [專欄](#) [作家](#) [作家](#) [校園作家](#) [校園作家](#) [言情作家\(網絡\)](#) [武俠作家](#) [網絡作家](#) [推理作家](#) [恐怖靈異作家](#) [韓國作家](#)

韩流文学-韩国青春文学

可愛淘	池秀賢	金賢正	金河仁	崔姝蘭	崔勝智	多忍2	金慶輝	金智慧
金藝風	流浪的青春	金明淑	姜佳英	蘇熙	酷兒	葡萄	酷貝兒	銀世英
夏雨愛特	吳賢正	鄭恩京	李帥雅	銀戒指	瑞戀	紫色女孩	周孝善	徐亨周
鄭周喜	銀鋒	朴京恩	金恩更	全民熙	姜美珠	韋炫羽	金聖鍾	

索引 韩国青春文学作品列表

0-9	100天的约定	100天的约定2	1%的恋爱机会	19, 22岁
	21世纪美男条件1	21世纪美男条件2		
A	爱在哈佛	爱的五星级1	爱的五星级2	爱他就去追
	爱上霸道小子	爱的语法	爱上你坏小子	

<그림 3> 중국 온라인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국문학 작품 출처: 각주15)

16) 위 사이트에 올려진 작가들의 본명을 찾았으나 紫色女孩, 葡萄 등 두 작가의 한국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온라인을 통해 한국문학 작품을 중국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보급에 있어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위의 방법은 비공식적 접근이며 번역물의 질적 수준과 저작권 보호라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므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 감독이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할 점이다.

번역을 통한 한중 교류가 단순히 한국 문학서를 중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알리고 싶은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에는 가름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어 중국 현지에서의 독자층, 즉 소비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민간 출판사의 공격적인 시장개척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국 독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문학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번역 출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선호할만한 관심거리와 우리 문학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만한 적절한 저작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출간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리는 우리의 다양한 문화와 우수한 콘텐츠를 보급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 출판 현장에서는 경제성과 보급능력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 즉 생산자와 보급자, 소비자 사이에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관심영역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수요조사와 소통을 통해 출판 현장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하겠다.

4) 한국어 원서 출판 출로 개척

최근 타블로의 《BLONOTE》, 김용택의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가져갈지도 몰라》, 김정기의 《2016 sketch collection》, 강순제의 《한국복식사전》, 임기중 등이 쓴 《연행록의 세계》, 김문식의 《조선왕실의 외교의례》 등과 같이 책은 중국 현지 온라인 서점¹⁷⁾에서 한국어 원서가 판매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원서 판매는 그동안 정규 혹은 비정규 교육기관을

17) 豆瓣图书:중국 유명 인터넷 서점 <https://book.douban.com/subject/26976483/>(검색일: 2018.3.10.)

통해 배출된 한국어 전공자들이 잠재적 독자층을 형성했으며 한국 문학서에 대한 관심과 인터넷 직거래로 원서 수입 및 배급이 쉬워진 온라인 환경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 원서 독자층의 형성과 확대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하는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 문학서 보급이라는 과제를 생각할 때 번역서와 함께 한국어 원서 수출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며 이는 현재 한국 문학서의 중국 진출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나가는 말

한중 교류에서 현지인들이 한국 문학과 문화를 잘 이해하려면 제대로 된 한국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국 독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한국 문학서는 종류와 수량에서 독자의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로 한중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한국의 문화 정신을 알리고 양국민의 이해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상존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출판물의 출간과 번역 인재의 양성, 중국 현지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출판물의 발간과 현황 파악에 따른 미래전략 수립 등을 통해 한국 문학서의 지속적인 보급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문학 서적 전파에 있어 안정된 기틀을 다지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중국 대중으로 하여금 한국 문학서 대해 친근한 인식을 갖게 하고 다양한 내용을 통해 관심도를 높여 놓는다면 향후 좀 더 수준 있는 저작물을 갖고 중국 출판시장에서 안정적인 보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 작품과 저작물이 세계화를 이루는 길과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김혜림(2012) 중국의 번역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13집, 서울: 한국번역학회
박애양(2016), 중국 대학에서의 한국어 번역인재 양성 방안 연구, 언어와 문화
12권 4호, 서울: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손지봉(2015), 21세기 중한 문학번역의 현황과 전망, 한중인문학연구 48집,
서울: 한중인문학회
손지봉(2014), 중국의 번역연구 일고, 한중인문학포럼 발표 논문집 12
류대성 신병준(2012),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중1 소설, 서울: 창비
이지성(2016), 꿈꾸는 다락방, 서울: 국일미디어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코트라(2016), 2015년 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연구 보고서)

[인터넷 자료]

한국문학번역원:

http://library.litkorea.or.kr/translators?f=y&field_language%5B%5D=Chines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http://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1_view.asp?seq=262

중국국가판권국 中國國家版權局:

<http://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9977/313436.html>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

중국 인터넷 사이트: 努努书坊

<https://www.kanunu8.com/files/15.html>

중국 인터넷 사이트: 诗生活

<http://www.poemlife.com/index.php?mod=showtran&str=1370>

인터넷 서점: 豆瓣图书

<https://book.douban.com/subject/26976483/>

인터넷 서점: 当当网

<http://book.dangdang.com>

인터넷 서점: 亚马逊

<https://www.amazon.cn>

Abstract

A study on Korean literature introduced in Chinese online bookstores

Park, Aiyang

With translated literature being central to Korean-Chinese cultural exchange, there is significance in surveying the status of Korean literature available in the China. Through a survey of readership demand and an analysis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in online portals, the article determined the awareness and perception the Chinese have of foreign publications including Korean literature. According to the survey, the readership demand was not met in terms of the quantity of translated literature as well as the variety in genre. As the diversification and sustenance of Korean-Chinese interchange continues, more opportunities to publish translated works will increase. There is a need for diversified efforts to supply sufficient literature inclusive of the Korean culture. However, there is a need for continued monitoring of consumer demand in addition to considering the supplier's needs. Above all,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desperat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to foster and manage translation talent in order to produce a variety of translated Korean literature in the future.

Key words : Korean literature, Korean-Chinese translation, on-line bookstores, Korean-Chinese interchange, translation talent

투 고 일 : 2018. 4. 10. / 심 사 일 : 2018. 4. 15.~ 2018. 5. 15. / 게재확정일 : 2018. 5. 20.

부록1 재중 한국문학 번역가

번역가	이력	
金蓮蘭 《가시고기》	朝鮮族, 教授, 知名翻譯家, 現任東方語言學院教師。	김련란. 조선족, 교수, 번역가, 현재 동방언어대학교수
金冉 김승옥 《한국현대소설선집》	韓國文學翻譯家。本名, 金鶴哲, 朝鮮族, 曾任中國《延吉晚報》記者/編輯、韓國《中文週報》總編輯、韓國水原科學大學觀光中國語系專任講師; 現任哈爾濱工業大學(威海)朝鮮語專業副教授。	김염. 한국문학 번역가, 본명 김학철, 조선족, 중국<연길만보>기자·편집역임, 한국<중국주보> 편집장, 한국 수원과학대학 관광중국어과 교수, 현재 하얼빈공업대학(위해) 조선어과 부교수.
金英姬 강만길 《한국현대사》	金英姬: 女, 朝鮮族, 2004年8月起在廣東外語外貿大學東語學院朝鮮(韓國)語系任教。	김영희. 조선족, 2004년8월부터 광동외국어대외무역대학 조선어과 교수로 근무함.
金泰成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朝鮮族, 畢業於中央民族大學少數民族語言文學系。曾在國家安全部, 外企, 北京泰恒達貿易有限公司工作。2003年開始發表文學作品, 2007年加入北京作家協會。	김성태. 조선족, 중앙민족대학 소수민족언어문학과, 국가안전부, 외국기업, 북경 태항달무역유한회사 근무, 2003년부터 문학작품 발표, 2007년 북경 작가협회 가입
金英今 박경리 《토지》	1961年畢業於延邊大學語文系, 先後在延邊日報、中國朝鮮族少年報等單位當過記者、編輯30多年。1993年11月退休。1962年發表處女作以後, 陸續發表300多萬字的小說、報告文學、隨筆、散文等。1987年由中共延邊自治州州委受《優秀少年兒童新聞工作者》稱號。	1961년 연변대학 어문계, 연변일보, 중국 조선족 소년일보 기자 및 편집부에서 30여년 활동, 1993년 11월 은퇴
李承梅 이광수 《흙》	李承梅: 教授, 文學博士, 中國海洋大學朝鮮語系碩士研究生導師; 1994年9月至1995年7月韓國梨花女子大學訪問學者, 2000年9月至2001年3月韓國成均館大學訪問學者。	이승매, 교수, 문학박사, 중국 해양대학 조선어과 석사지도교수, 1994년 9월부터 1995년 7월 한국이화여자대학교 방문학자, 2000년 9월부터 2001년3월 한국 성균관대학교 방문학자

번역가	이력	
李龙海 이광수 《흙》	李龙海, 朝语系教授, 朝鲜语系硕士研究生导师; 任中国朝鲜语规范委员会副主任、中国韩国语教学研究会副会长、中国朝鲜语学会副主任、韩国翻译家协会特别会员等职务。	이용해, 중국 해양대학교 한국어과 교수, 조선어과 석사 연구생 지도교수, 중국 조선어규범위원회 부주임, 중국한국어교육학회 부회장, 중국조선어학회 부주임, 한국번역가협회 특별회원 등 역임
尚咏梅 한국역사연구회	尚咏梅: 2001年毕业于朝鲜金日成综合大学; 1997年7月入吉林省社会科学院朝鲜·韩国所工作, 从事朝鲜半岛问题研究工作。研究领域为朝鲜半岛政治、经济问题, 现任助理研究员。	상용매, 2001년 김일성종합대학졸업, 1997년7월 김립성사회과학원 북한-한국연구소 근무, 한반도문제 연구. 연구영역: 한반도 정치 경제문제.
徐丽红 신경숙 《외딴방》	徐丽红: 翻译家。与薛舟合译《单人房》获得第八届韩国文学翻译奖。	서려홍. 번역가. 설단과 공역한 <외딴방>으로 제8회 한국문학번역가상 수상
薛舟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薛舟, 原名宋时珍, 汉族。1998年毕业于解放军外国语学院。诗人, 翻译家, 祖籍山东, 现居北京。	설단. 본명 송시진. 한족. 1998년 해방군외국어대학 졸업, 시인, 번역가, 산동성 출신으로 현재 북경에 거주.
孙鹤云 허진호 《외출》	孙鹤云, 中国传媒大学外国语学院韩国语专业讲师, 北京大学外国语学院朝韩语系文学博士, 曾赴韩国庆熙大学进修。	손학운. 중국 미디어방송대학 외국어대학 한국어과 교수, 북경대학 외국어대학 조선어과 문학박사, 한국 경희대학교 연수
荀寿潇 김하인 《국화꽃향기》	山东省乳山人, 1993年考入北京大学, 2000年硕士毕业, 主修韩国文化, 现居北京。翻译家, 学者, 作家。	순수소. 산동성 유산인. 1993년 북경대학 입학 2000년 석사 졸업, 한국 문화 전공. 현재 북경 거주. 번역가, 학자, 작가.
苑英奕 황석영 《객지》	大连外国语大学研究生导师。2003.2 在韩国国立木浦大学取得学士学位。2005.2在韩国西江大学取得文学硕士学位。2009.2 在韩国国立首尔大学取得文学博士学位。	원영혁. 대련외국어대학 대학원생 지도교수. 2003년2월 한국국립목포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2005년2월 한국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취득, 2009년2월 한국국립서울대학교 문학박사 학위 취득

번역가	이력	
张敏 이효인 《영화로 읽는 한국사회문 화사》	北京大学教授, 翻译家。	장민. 북경대학교 교수, 번역가
郑炳男 성석제 《도망자 이치도》	郑炳男, 朝鲜族, 笔名沉默见证人, 1963年5月生于辽宁。1988.9—1991.12《延边大学学报》编辑部编辑, 1992年至今自由职业。	정병남. 조선족, 필명 심묵경인. 1963년5월 요녕 출생. 1988년9월부터 1991년12월까지<연변대학학보> 편집부 근무, 1992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음.
陈琳 김하인 《내 마음 의 풍금 소리》	毕业于上海复旦大学外文系韩国语言文化专业, 现就职于韩国驻中国大使馆	진림. 상해복단대학외문과 한국어언어문화 전공, 주한중국대사관 근무.
千日(千太阳) 조신영 《쿠션》, 한강 《채식주의 자》	中国翻译协会韩国语、日语会员。韩国文学翻译院特约专家, 负责在中国出版的韩国文学作品的译稿审订工作。	천일. (필명 천태양) 중국번역가협회 한국어, 일본어 회원. 한국문학번역원 특약작가,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문학작품의 번역서의 교정 책임
崔莲花 문덕 《웃지마 나 영어책이야》	延边大学农学院讲师	최연화. 연변대학교 농학대학 교수
崔有学 한강 《내 여자의 열매》	中央民族大学韩语教研室主任	최유학. 교수, 중국민족대학 한국어교육연구실 주임
佟晓莉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	佟晓莉, 毕业于大连外国语学院韩国语系, 主修韩国文学与经济。韩国语专职翻译。	동소리. 대련외국어대학 한국어과 졸업, 한국어 전문 번역가
韩梅 김동리 《무녀도》	汉族, 山东大学教授。1989年9月—1994年7月 由教育部公派在朝鲜金日成综合大学朝鲜语文学部留学, 获得学士学位。1997年9月—1999年8月 在韩国成均馆大学国文系攻读硕士学位, 获得硕	한족. 산동대학 교수. 1989년9월부터 1994년7월까지 교육부 파견으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에서 유학 후 학사학위 취득. 1997년 9월부터 2003년2월 한국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

번역가	이력	
	<p>士学位。1999年9月-2003年2月在韩国成均馆大学国语国文系攻读博士学位，获得博士学位。</p>	<p>취득</p>
<p>许莲顺 하성란 《삿뿔로 여인숙》</p>	<p>朝鲜族，吉林延吉人。1980年毕业于延边大学朝文系。现为市文化艺术创评室创作员，延边女文人协会会长。</p>	<p>허연순: 조선족. 길림연길출신. 1980년 연변대학 조선어과 졸업. 현재 시문화예술창조비평실 창작원. 연변여자문인협회 회장</p>
<p>黄簧 귀여니 《아웃사이더》</p>	<p>湖北武汉人，本科期间获韩国政府奖学金，在韩国汉城的庆熙大学进修半年。</p>	<p>황징. 호북무한 출신. 학부시절 한국 정부 장학금으로 한국 경희대학교 6개월 연수</p>